



“낙엽이 우수수~” 시나브로 가을이 깊어 간다. 도심의 가로수에도 어느새 가을색이 완연하다. 5일 한 어르신이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거리에서 낙엽을 쓸고있다. 강희민기자

제주도,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 공개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부터 27일까지 '2021년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 및 주소소를 둔 업체 중 영업신고(리모델링)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다. 신청 분야는 관광지·교통·숙박업·여행업·음식업 등 5개 분야이다.
 도는 관광사업체 신청 서류 등 자격요건 심사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와 우수관광

사업체 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기간은 2년(2022년 1월 1~2023년 12월 31일)이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 및 인증패가 주어진다.
 희망 사업체는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서류 작성 후 제주관광광협회(741-8752)에 신청하면 된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재검토

2025년 말까지 처리용량 22만t으로 증설 추진
 공사비·공기 등 문제 턴키방식입찰 일단 유찰
 도, 희망 업체와 면담... 최적 대안 모색 나서

오는 2025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926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업계에서 총 공사비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주도에서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턴키방식 입찰 공고가 2번 유찰됨에 따라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입찰 희망 업체와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사업

비와 공사 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어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한 후 이달 중 3차 입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926억원을 투입해 현재 1일 하수 처리용량을 13만t에서 22만t으로 증설하는 사업이다.
 하수 처리 공정을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공원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공사기간은 57개월로, 오는 2025년말까지는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마무리해 시설을 가

동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사무실과 공원조성 등 부대시설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무중단 공법임에도 사업비가 적고 공사기간 연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시설공사금액은 토목공사 1100억원, 산업환경설비 2200억원, 전기통신공사 370억원, 전문소방시설 15억원 등 총 3781억원이다.
 제주도에서 사업비 증액 요구를 수용할 경우 도가 기본설계를 해야 하는 등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도두하수처리장은 현재 미생물로 하수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표준 활성슬러지법으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하수가 유입되면 유입점까지(자갈·모래·쓰레기 등을 제거)→ 1

차 침전지(하수를 침전시켜 오염물질 제거)→생물반응조(질소와 인 등을 미생물로 제거)→2차 침전지(미생물로 처리된 처리수의 슬러지를 침전시켜 상등수 방류)를 거쳐 해양으로 방류되고 있다.
 여름철 집중 호우시 하수와 빗물이 동시에 도두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하수처리용량이 초과돼 미처리 하수가 도두동 앞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졌지만 기업들의 속마음을 들어 보지 못했다”면서 “이번주에 기업들과 일대일 면담을 진행해 이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공사기간과 공사비 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대안을 마련, 3차 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외국인카지노 '대리게임' 가능해지나

온라인으로 대리인 통해 카지노 게임 방식
 국회 상정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주목'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온라인 '프록시 배팅'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허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록시 배팅은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외국에 있는 손님에게 입장에서 이뤄지는 게임상황을 스트리밍으로 송출하고 카지노에 있는 대리인이 고객의 의견을 듣고 대리배팅을 하는 게임방식이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상정됐다.
 국내 카지노 업계에서는 요즘같은 팬데믹으로 국가간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는 프록시 배팅을 합법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관련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도내 한 외국인 카지노 관계자는 “외국에서 카지노 고객이 아예 들어오질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매출액은 1782억 8700만원(입장객 33만2610명)을 기록했다. 이중 육지부 카지노 매출액은 1608억9900만원(입장객 27만4784명), 제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은 173억 8800만원(입장객 5만7826명)이다. 도내 8개 외국인 카지노 매출액은

2018년 국내 카지노 전체 매출액의 30%를 점유했으나 2년 사이 10%로 하락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11월 11·12일 이들 간 제주도 노형동 소재 드림타워 북힐리조트에서 '2021 제주 국제 카지노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카지노산업 생존 전략과 지역사회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카지노산업의 발전 방향'이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제한과 예방 차원에서 외국 토포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3개 세션별 토포에 참여한다.
 고대리기자

극조생 가공용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저품질 감귤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는 '극조생 가공용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을 다음달 10일까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직경 45mm 이하 극조생 소과 또는 2L 이상 대과를 농가로부터 사들인 뒤 시장에서 격리,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수매 단가는 kg당 180원으로, 제주도는 이번 격리 사업을 통해 총 1만 5000t(27억원 상당)을 사들여 폐기할 계획이다. 격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농가는 격리 대상 감귤을 작업용 컨테이너에 수확·계량 후 격리할 장소에 비치해 해당 읍면동 또는 농·감귤협회로 확인 요청을 하면 된다.
 제주도는 품종별, 수확 시기 별로 구분해 2차레로 나눠 시장 격리 신청을 받는다. 1차 신청기간은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2차는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다.
 이상민기자

제주 코로나19	신규	4
5일 <17시 기준>	누적	2913

The 60th Tamna Culture Festival

와랑차랑 천년탐라 이여사나 제주미래

천년탐라가 찬란하게 밝혀지고
 힘차게 제주를 미래로 나아가간다

탐라문화제

2021. 10. 6(수) ~ 10. 10(일)
 제주특별자치도내(공연장) 일원 **YouTube** 탐라문화제 검색

주최 | **Jeju** 제주특별자치도

인근예중제주특별자치도연맹회

주관 | **제60회탐라문화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농림축산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노년회 **민간선소주**